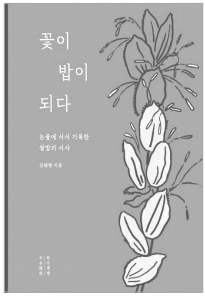


논물에 서서 기록한 ‘쌀밥의 서사’

꽃이 밥이 되다
김혜형 지음



서울에서 증권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그는 ‘삶을 재배치하고 싶다’는 마음에 “도시에서 몸을 쏙 뽑아내 곧장 시골 흙에 옮겨 심고” 농사꾼이 됐다. 남편, 아이와 함께 전셋집을 얻어 정착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은 그는 “내가 감각한 세계로 지은 알곡을 찢어 첫 햅쌀로 밥을 해 먹은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결실이 있기까지는 고단한 일상과 힘든 노동이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 ‘밭가락 사이로 밀려 올라오는 고운 진흙의 촉감, 벼와 피를 구분하는 미세한 감각, 구수한 나락 냄새’까지 그가 ‘오감’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던 세계도 있었다.

‘노동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김혜형의 새 책 ‘꽃이 밥이 되다-논물에 서서 기록한 쌀밥의 서사’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쌀밥의 이야기이자 논물에 발을 담고 그 사는 농부의 분투기’다.

‘휴일’을 하며 산 지 20여년이 된 저자는 벼가 쌀밥이 되는 과정과 농부로서의 삶, 정을 나누는 이웃 사람들과 눈에 함께 사는 생물 이야기까지 담아 아름다운 ‘농사일기’를 펴냈다. 빈 눈에 퇴비를 넣어 써레질을 하는 일로 시작해 ‘노랑색’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따뜻하고 짙은 황금빛’ 나락을 추수하고, 밥 한 그릇을 지어내는 과정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책은 농사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에게도 흥미롭게 읽힌다.

강화도에서 10여년을 산 그는 귀농 선배의 소개로 1800평의 땅을 사 곡성으로 내려온 후 야산을 깎아 만든 척박한 들밭에서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는 생활이

도 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었기에, 농약과 제초제는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고 그 원칙을 지키며 농사를 이어간다. 또 토양의 생태환경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무경운 배농사’도 실천한다.

농사는 “오직 보살피고, 아끼고, 복돋는 과정”이고 “땀씨가 이룰 가을의 성과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쌀밥의 무게로 온다”고 말하는 대목은 웬지 농부로서의 신성함을 느끼게 해준다.

저자는 수매 가격 등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도 잃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농부는 “소득이 노동력 투여량에 비례하지 않고, 자연재해의 불확실성과 맹목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며,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미지수인 직업”이다.

책 속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저자는 웬만한 어른보다 농사일을 잘하는 고1, 고3 십 이장네 두 아들과 아흔 둘인 어르신이 함께 손을 보태는 모습에서 몽클함을 느낀다. 더불어 “기대지 않고 빚지지 않으며 힘닿는 대로 돕고자 하는” 어르신을 보며 “주어진 삶의 최대치를 소진하고 떠나는 삶”을 생각한다.

‘강하게 살고 싶어’ 스스로 ‘강은주’라는 이름을 지은 베트남 여인 은주씨, 선뜻 자기 못자리를 내준 옆 마을 이장 등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마음이 간다.

논에서 일하며 거머리와 피를 나누는 저자의 시선은 논둑에 알을 낳은 청둥오리, 모내기 직후 풀어놓은 어린 왕우렁이, 풍년을 예감케해준다는 설이 있어 이름이 붙은 풍년새우 등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로도 향한다. 강인한 생명력을 보였던 한 마리의 긴꼬리투구새우가 ‘한 생애를 의탁했던’ 논이 자신의 논이었다는 데에서 약 안치고 농사짓는 보람도 느낀다.

책을 읽다 보면 프롤로그의 제목 ‘밥 한 술이 꽃 한다’ 발’이나 ‘아기 뱀씨가 눈 뜨는 날’, ‘한 알의 쌀이 잉태



가을 하늘 아래 익어가는 곡성 논의 벼. <목수책방 제공> 되는 순간’ 등 마치 시구 같은 대목과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 많아 밑줄을 그고 싶어진다.

“도시에서 살 때는 책상머리 인생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발 노동이 삶을 떠받친다. 힘들기는 하지만 괴롭지는 않다고,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 부럽기도 했다.

<목수책방·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바지런한 끼니(안아라 지음)=푸드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맞춤 케이터링과 강연으로 대안적 먹거리를 고민해온 저자가 일상과 계절의 맛을 글과 요리법으로 풀어낸다. 싱그러운 나물 향기, 따뜻한 밥 냄새가 계절의 풍경과 어우러져 지친 마음에 다정한 위로를 건넨다. 건강한 식재료로 빛은 정갈한 밥상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색으로 차곡차곡 몸과 마음에 쌓인다. <안온북스·1만8000원>

▲프랑스를 만든 나날, 역사와 기억 2(이용재 외 16인 지음)=프랑스 혁명부터 샤를리 엡도 사건까지, 격동의 프랑스 역사를 한눈에 살핀다. 한국프랑스사학회 기획한 이 책은 프랑스 근현대사의 핵심 장면들을 정치·사회·문화사조의 흐름 속에서 다층적으로 조명한다. 한국 연구자들의 시선으로 해석한 역사 평론이 프랑스를 새롭게 읽어낸 단초가 되어준다. <푸른역사·3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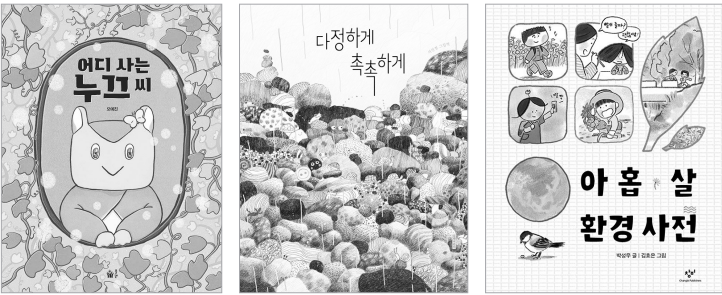
▲지구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아이작 유엔 지음, 성소희 옮김)=지구라는 경이로운 행성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띄우는 다정한 러브레터. 곤충과 포유류, 고대 생물과 화석에 이르기까지 비인간 생명체들의 세계를 생물학적·지질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문학의 언어로 풀어낸다. 과학 칼



럼처럼, 동화처럼, 때로는 공상과학소설처럼 펼쳐지는 글들이 아름다운 생명의 서사를 펼친다. <알레·2만2000원>

▲AI 시대 일자리 혁명(이종호 지음)=AI의 등장은 마치 인류의 출현처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왔다. 일자리 영역에 AI가 침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대비한 이들에겐 전혀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과 전략이 있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북카리반·1만8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디 사는 누끼 씨(모예진 지음)=우리는 모두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살아가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제각각이다. 책은 바위소년 준과 하늘다람쥐 누끼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숲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조용히 들여다본다. 고요하고 상냥한 그림 속에 담긴 숲의 이야기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마다의 속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정하게 응원한다. <폴빛·1만6800원>

▲다정하게 축축하게(서선정 지음)=겉껍이 쌓인 연필 선이 빚어낸 흑백의 풍경 속으로, 조용한 여행이 펼쳐진다. 땅으로 내려온 빗방울은 초록 잎을 더욱 싱그러이 적시고, 마른 골목과 들녘에 생기를 채워

넣는다. 도시와 시골, 자연 사이를 천천히 거닐 듯, 비 오는 날 장땀을 응시할 때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에 잔잔한 심표를 건넨다. <길벗어린이·1만7000원>

▲아홉 살 환경 사전(박성우 지음, 김효은 그림)=가뭄과 폭우, 산불, 미세먼지와 해양 쓰레기까지.. 점점 더 가파워진 환경 문제를 어린이의 시선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다. ‘가꾸다’부터 ‘회복하다’까지, 환경과 관련된 80가지 키워드를 일상 속 예시와 연결해 설명하며, 어렵게 느껴졌던 개념들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뜻한 그림과 함께 펼쳐지는 환경 이야기는 어린이의 교양은 물론 상상력까지 키워주는 작은 생태 사전이다. <창비·1만5800원>

시간을 모티브로 다양한 존재와 관계에 의미 부여

머문 날들이 많았다
박현우 지음



언어예술은 시간예술이다. 언어의 분절 가운데 하나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면에 활자화된 언어는 시간을 초월해 독자와 소통한다는 데 모티브가 있다.

박현우 시인이 최근 펴낸 시집 ‘머문 날들이 많았다’에는 시간 인식이 투영된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맹문재 평론가(안양대 교수)의 “시인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시간 인식으로 반영한다”는 표현처럼, 이번 시집은 시간을 연계로 존재들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진도 출신인 시인은 조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

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했다. 참교육을 등을 하던 1989년 ‘폴빛도 불빛도 하나로 만나’라는 제목의 부부시집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다 30년 만인 2020년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를 발간하면서 다시 창작의 자리로 돌아왔다. 얼마 전에는 ‘떨어지는 것들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펴내고 창작에 전력하고 있다.

오랫동안 창작에 몰입해 있던 시인은 마치 갈증을 달래듯 시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 그는 인물의 행위, 상황을 시간이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응시하며, 위로와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노친네 세 분이/ 버스 정류장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 함께한 육신 노인 처지를 묻는데// 공개라./ 울 엄매도 아흔이 훌쩍 넘었는지/ 삼십 줄에 홀로 돼 쟁고생하는 게 전해서/ 어찌어찌 함께하다 보니/ 이젠 온 삭신도 추시고// 그라./ 자석인게 차마 눈 돌리지 못하고/ 으매, 어찌껏어 고상은 했네마는/ 아적은 자네, 꽃인게로/ 열른 보내부러야 쓰졌구만// 쫘쫘.”(‘아적은 꽃

전문)

노인들 셋의 대화를 한 편의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아흔이 넘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노인의 안쓰러운 처지를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지게 풀어냈다. 예순이 넘는 나이에도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네’는 오늘의 시골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다. “아적은 자네, 꽃인게”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애잔함을 드러내는 한편 오늘의 농촌 현실을 에둘러 꼬집는다.

시에서 특유의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은 박 시인의 고향이 진도라는 점과 연관돼 있다. 진도 육자배기 가락 같은 어조는 그의 시가 지닌 미덕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은 그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한편 맹문재 평론가는 “시인은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구성해 현실을 인식하는 거울이나 미레를 지향하는 듯대로 삼는다”고 평한다.

<푸른사상·1만2000원>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